

가부장 권력과 화폐 권력의 결탁과 경합*

: 김유정 소설을 중심으로

권창규**

차례

1. 머리말: 가족의 증여와 교환의 폭력이라는 이분법에 대해
2. 매매혼 시장의 구매자 남성과 여성 상품
3. 가부장 자본가의 아내 (성)매매
4. 들병이 성노동을 통해 본 착취 구조와 해방의 가능성
5. 맺음말: 요약과 전망

<국문초록>

본 논문은 가족을 호혜적으로 보고 교환은 폭력적으로 보는 이분법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김유정의 소설 속에는 단출한 형태의 부부 단위의 가족이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도박이나 사기, 도둑질,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 본 연구는 토지로부터 떨어져나간 농민들의 일탈 행위가 식민지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했다고 보았으나 일탈 과정에서 보이는 또 다른 착취 양상에 주목했다. 바로 가부장제에서 남성 가장이 성(젠더) 위계와 연령 위계에 따라 가족 성원을 착취하는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부장 가족제도 내에서의 증여자의 권력이 시장 교환의 폭력성과 어떻게 결탁하고 경합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본 연구는 주로 여성 소외 노동의 극대화된 형태인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주목했고 직업적인 성노동을 통해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2014S1A5B5A07041740]

**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대우교수

착취 구조가 형성된 들병이 부부의 생활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아내의 성노동을 착취하는 남편이 지닌 가부장 자본가로서의 면모와 아내의 해방 가능성을 함께 논의했다.

핵심어 : 핵가족, 화폐, 결혼봉건제, 가부장제, 식민지자본주의, 성노동, 인신매매, 매매혼, 들병이

1. 머리말: 가족의 증여와 교환의 폭력이라는 이분법에 대해

가족은 종종 고정불변의 것으로 오인된다. 가족은 흔히 증여와 호혜의 공동체라고 여겨지지만 김유정 소설 속의 가족은 파편화된 양상을 보인다. 파편화된 가족의 모습이 가난한 현실 탓이라고 해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로 의지해가며 시련을 극복해가는 따뜻한 광경도 찾아보기 어렵다. 김유정 문학에서 민중의 생명력에 주목하는 전통적인 평가는 가족을 신화화하는 관점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다. 궁핍한 현실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가족중심주의에 주목하는 것이다. 가족중심주의는 가족을 옹호하거나 강화하려는 보수주의적 입장을 담고 있다.¹⁾

가족중심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족과 사회는 대조적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사회가 일종의 화폐공동체라면²⁾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는 그 내부에서 상품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증여와 호혜의 공동체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증여와 호혜가 자유롭고 교환과 계약은 폭력적이라는 단순

1) 가족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은 권명아,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15쪽; 김유정 소설 속 부부의 강한 응집력을 기반으로 한 가족중심주의에 주목한 연구로 전신재, 「농민의 몰락과 천진성의 발견」,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전신재 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313-336쪽.

2) “화폐 그 자체가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는 화폐가 공동체를 해체해야 한다.” 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1』, 김호균 역, 백의, 2000, 215쪽; 사회와 공동체의 구별에 대한 설명은 고병권, 『화폐, 마법의 사중주』, 그린비, 2005, 183쪽 참고.

한 이분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족의 근대적 변화에는 증여자의 권력이 작동하는 양상과 시장 교환 체제의 착취 양상이 겹쳐 있다.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농민 가족의 상황부터 보자. 본격적인 유량의 길로 들어선 농민들이나 드물게 등장하는 모범 농민(「만무방」의 응오)은 자본주의 진행 과정에서 수탈되는 농촌의 상황과 일체의 수탈적 식량 정책이 겹쳐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농민은 1930년대 지주적 토지 소유 관계로서의 식민지지주체가 심화되는 데서 고통받는 소작농이거나 이에 땅을 빌리지도 못하는 품팔이 농업노동자들이었다. 토지에서 분리되어 광업에 종사하는 농촌 사람들도 일본인 광업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비천한 몸으로 착취되는, 목숨 값이 헐한 노동력에 불과하다(「금」). 농촌을 떠나 도시와 서울에 편입된 하층민도 마찬가지다. 「생의 반려」에 등장하는 서울의 누이는 공장 노동자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지만 저임금을 받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현직, 전직 농민들은 지주 자본가, 광업 자본가, 기업 자본가, 나아가 식민지 자본주의 권력에 수탈당하는 인간 존재들로 소외 양상을 뚜렷이 보여준다.³⁾ 도박과 사기, 도둑질,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흔히 토지로부터 분리된 농민이 막다른 상황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일탈 행위로 일견 합리화될 수 있지만 피착취자인 농민이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착취 양상에 주목할 수 있다. 바로 성(젠더) 위계와 연령 위계에 바탕을 둔 가부장제에서 남성 가부장이 가족 성원을 착취하는 양상이 그것이다.

가부장제는 부계 가족제도에서 가장이 가노를 포함한 가족 전원에 대해 지배권을 지니는 가족 형태다. 김유정 소설에는 종래의 가부장제 권력과 새로운 화폐 권력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착취자인 농민이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착취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살피는 데 종래 가부장 권력과 화폐 권력이 관계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

3) 권창규, 「토지로부터 분리된 농민과 투기자본주의 주체 사이」, 『인문과학연구』 55,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7 참고.

추고자 한다.

김유정 소설 연구의 한 갈래로 가부장제 권력에 주목한 연구들은 축적되어 왔다.⁴⁾ 본 연구는 이들 연구의 연장선에서 종래 가부장제의 권력 구조가 변모하는 과정에서 화폐 권력과 가부장제 권력이 관계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근대에 들어 가부장제 권력이 변모하는 과정을 살피는 데 화폐 권력과의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이 본 논문의 의의라 하겠다. 김유정 문학 속에서 화폐나 자본주의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어⁵⁾ 이를 참고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1933년부터 1937년 사이에 발표된 김유정의 소설 전편을 살폈으며 그 중에서도 부부 가족의 변모가 두드러지는 소설로 「산골나그네」, 「총각과 맵공이」, 「소낙비」, 「금」, 「만무방」, 「술」, 「봄봄」, 「아내」, 「가을」, 「생의 반려」, 「정조」, 「슬픈 이야기」, 「애기」, 수필 「조선의 집시」 등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룬다.

4)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학』, 소명출판, 2007, 234쪽; 장소진, 「김유정의 소설 <소낙비>와 <안해>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1, 165-188쪽; 이호림, 「시각성 측면에서 본 30년대 유정 소설의 여성상 연구」, 『비평문학』 17, 한국비평문학회, 2003, 251-265쪽; 김주리, 「매저 키즘의 관점에서 본 김유정 소설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2006, 295-323쪽; 박혜경, 「김유정 소설 속 여성인물이 구현한 성의 양상」, 『아시아문화연구』 32,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161-179쪽; 이진송, 「김유정 소설의 장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2015 등. 들병이의 성매매에 집중한 연구는 본문에서 언급하겠다.

5) 홍정선, 「김유정 소설의 구조」, 전신재 편,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303-311쪽; 김양선, 「1930년대 소설과 식민지 무의식의 한 양상」, 『김유정 문학의 재조명』, 김유정문학촌, 편, 소명출판, 2008, 86쪽; 김준현, 「김유정 단편의 “반半소유” 모티프와 1930년대 식민수탈 구조의 형상화」, 『현대소설연구』 2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43-163쪽; 김화경, 「김유정 문학의 근대 자본주의 경험과 재현 양상」, 『김유정의 귀환』, 김유정학회 편, 2012, 165-195쪽; 전봉관, 「김유정의 금광 체험과 금광 소설」, 『김유정의 귀환』, 김유정학회 편, 소명출판, 2012, 146-164쪽; 서준섭, 「물락 농민」, 『김유정과 동시대 문학 연구』, 유인순 외, 소명출판, 2013, 11-31쪽; 이경, 「자본주의보다 먼저 온 실패의 예후와 대안적 윤리」, 『김유정과 만남』, 김유정학회 편, 소명출판, 2013, 164-198쪽 등.

2. 매매혼 시장의 구매자 남성과 여성 상품

김유정의 소설 속에는 팔고 팔리는 인간들이 많이 등장한다. 팔고 팔린다고 하면 시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노동력으로 상품화되는 인간 존재의 소외 양상을 떠올릴 수 있지만 흔히 떠올리는 노동자의 소외에서 더 나아가면서 특징적인 면이 나타난다. 당시 여성에 한정되었던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그것인데, 성매매와 인신매매 속에서 판매되는 딸, 판매되는 아내가 등장하고 딸과 아내를 판매하는 가부장으로서의 아버지와 남편이 등장한다.

서울에서 여급 생활을 하는 영애의 존재(「따라지」)는 딸을 기생으로 팔아먹는, 근대 소설에 흔하게 등장하는 아버지들을 말해준다. 가난한 살림에 딸을 팔아먹는 아버지들, 설혹 누군가가 선채를 갖고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해도 돈 떨어지면 다시 딸을 팔아먹는 아버지들이 늘어나면서 서울 장안에는 술한 동기(童妓)들이 있었다.⁶⁾ 가난한 아버지가 딸을 팔아먹는 일은 조선 중기 이후의 혼란상에도 나타나는데 근대의 딸 판매는 특정 계급이 여성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일반 남성들도 돈만 있으면 여성을 살 수 있게 되면서 확산되었다.

소설에는 근대 시장에 딸이 판매되는 일 말고도 공식적인 혼인 제도를 통해 딸이 거래되는 사례가 등장한다. 선채를 받고 덕만의 누이를 판 아버지(「총각과 맹꽂이」), 딸 셋으로 데릴사위 거래를 하는 아버지(「뽕뽕」), 한밑천 챙기고자 딸의 시집을 미루는 아버지(「애기」)가 그들이다. 「애기」속 “신주같이 위하던 남의 밥줄”이란 곡물을 얻을 수 있는 논밭도 아니고 소나 가축도 아니다. 바로 아버지가 자기 딸을 일컫는 말이다. “딸을 낳아가지고 그냥 내줄게 뭐야. 애써 길렀으니 덕 좀 봐야지. 부자 놈만 하나 걸려라. 잡은 참 물고 달릴 티이다.”⁷⁾고 말하는 아버지는 ‘부자 놈을 물고

6) 채만식의 『탁류』(1938) 속 승재에게 건네는 기생어멈의 말과 『태평천하』(1940)에서 춘심을 통해 그려진 서울 장안의 동기 풍경 참조.

7) 「애기」, 전신재 편, 『김유정전집』, 강, 2007, 389쪽(이하 작품 인용 시 작품 명과 쪽

달리는’ 데 실패한 후 일종의 결혼 사기극을 도모한다.

혼인 제도를 통해 딸을 파는 아버지 그리고 아내를 사는 남편은 매매 혼이라는 여성매매의 독특한 풍속에 등장하는 거래자들이다. 매매혼의 풍속에서 여성은 거래 대상이 되고 남성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성을 얻어 와야 하는 주체가 된다. 딸을 거래하는 주체는 집안의 가부장인 아버지이며 남성은 아내를 사야 한다. 매매혼은 오랜 형태인 약탈혼이나 여성 교환(일종의 현물교환으로 매매혼의 전 단계)에 이어 여성을 거래해 온 양상에 속하지만 매매혼에서 혼인은 보다 조직화되고 발달되어 있다. 매매혼에서 여성의 존재 가치는 사물화되는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해지고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⁸⁾

김유정은 수필 「조선의 집시」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시골 노총각들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시골의 총각들이 취처(娶妻)를 한다는 것은 실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결혼 당일의 비용은 말고 우선 선채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 적어도 사오십 원의 현금이 아니면 매혼시장에 출마할 자격부터 없는 것이다. 이에 늙은 총각은 삼사 년 간 머슴살이 고역에 부득이 기대한다.”⁹⁾ “매혼 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남성의 자격이 현금(혹은 현금에 상응하는 대가)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여성의 출마 자격은 나이나 미모와 같은 생래적인 요소가 된다. 매매혼 시장에서 남성이 구매자의 요건을 요구받는다면 여성에게는 매매 상품으로서의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다.

소설에는 직접 물질적인 대가가 오가지 않는 하층 계급 남성의 매혼 시장이 펼쳐진다. 사실상 몸만 가진 가난한 남성들의 이야기인 셈이다. 「만무방」의 모범 농민인 응오는 삼 년 간 머슴을 살아서 아끼고 아껴 사경을 받는대로 장리를 놓아 선채로 써서 겨우 “계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계집이 두 해도 못 가서 아파서 반송장처럼 드러누워 있어 응오는 기

수만 표기).

8) “여성의 매매에서는 여성의 억압, 착취 및 사물화된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여성의 매매에서는 여성이 가치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고도 강렬하게 표현”된다는 짐멜의 말을 수정했다. 게오르그 짐멜, 『돈의 철학』, 김덕영 역, 길, 2013, 642쪽.

9) 「조선의 집시」, 417쪽.

가 찬다.¹⁰⁾ 데릴사위제도 머슴살이와 질 배 없었다. 장인과 데릴사위의 관계를 코믹하게 그려낸 「봄봄」에서 화자인 나는 사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성을 얻기 위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머슴”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봄봄」의 장인은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고로”¹¹⁾ 데릴사위를 두어 노동력을 확보한다. 딸만 셋 있는 장인은 딸이 열 살 정도가 되면 차례로 사위를 들이는 바람에 “사위부자”라고 일컬어질 정도다. 데릴사위제는 여성 조혼의 대표적인 예로 여성이 나이가 어리고 남성이 나이가 많은 게 보통이다.¹²⁾ 「봄봄」에서는 바보 사위 모티프가 채용됨으로써 상대 여성인 점순이 각성된 성적 주체이자 성숙한 여성으로 그려지지만 데릴사위제의 현실을 보면 대개 나이 찬 성인 남성의 노동력을 대가로 해서 어린 딸을 내주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자녀를 물건시”하고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식”이라고¹³⁾ 생각하는 종래의 풍습 속에서도 아들과 딸의 구별은 존재했다. 혈연공동체 사회에서 어린 남성 역시 개인화, 주체화되지 못한 전근대적 존재였지만 남성에게는 가문을 이루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집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은 나가고 이동하지만 남성은 혈족 형성의 주체로 정착한다. 따라서 자식을 화폐로 환산하는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소설 「아내」에서도 아들과 딸은 구별되어 있다. “한 놈이 일 년에 벼 열 섬씩만 번다면 열다섯이니까 일백 오십 섬. 한 섬에 더도 말고 십 원 한 장씩만 받는다면 죄다 일천 오백 원이지.”¹⁴⁾ 벼 섬과 화폐를 벌어들이는 주체는 아들이다. 자식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전근대의 풍습에 화폐를 향한 욕망이 겹치면서 아들 존재도 어김없이 화폐화되고 있지만, 아들은 돈을 벌어들이는 주체이지 딸처럼 판매해서 이윤을 남길 대상이 아니다.

10) 「만무방」, 108쪽.

11) 「봄봄」, 164쪽.

12) 1930년대 평균 수명이 40세 안팎인 상황에서 조혼은 남자의 경우 17세, 여자 15세 이하로 규정되었다.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131-132쪽.

13) 순서대로 김경일, 위의 책, 137쪽. 「조선의 집시」, 419쪽.

14) 「아내」, 179쪽.

성년이 된 아들은 이후 아내를 사 올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로부터 사위에게 팔렸던 딸은 부부 단위의 결합 형태에서 다시금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유정의 소설 속에는 아내를 판매하는 남편들이 많이 등장한다. ‘혼인의 형식을 띤 인신매매’ 내지는 ‘공식적으로 보장된 매음혼’¹⁵⁾ 정도로 관계를 맺은 부부는 이후 결혼봉건제 속에서 남편 가부장과 그 소유물인 아내라는 결합 형태를 띤다. 전(前) 산업사회에 우세한 결혼봉건제는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지위에 기인하는 성적 종속과 경제적 의존을 특징으로 한다.¹⁶⁾ 김유정 소설 속에 많은 아내들은 몸을 팔아 돈을 벌어들이거나 혹은 몸 팔아 돈 벌기를 자처하는 모습으로 제시되거나 아예 인신매매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 중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문제의 들병이도 등장한다. 김윤식은 일찍이 김유정 문학의 출발점에서 들병이 사상에 주목한 적이 있는데¹⁷⁾ 이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다.

따져보면 남성 역시 매매혼 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을 상품화한 대가로 화폐를 취하는 소외노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남성 상품화와 다른 여성 상품화의 특징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남성 역시 매매혼 시장에서 사실상 팔고 팔리는 매매 관계에 속해 있으며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하층 계급 남성은 머슴살이나 테릴사위 되기를 통해 노동력을 판매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동력과 교환한 화폐를 지불해야 아내를 구할 수 있었다. 혼인 후에도 남편은 노동력과 화폐(혹은 화폐에 상응하는 현물)를 교환하는 소외 노동을 이어간다.

15) 김경일, 앞의 책, 146-148쪽.

16)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정금나·김은정 옮김, 삼인, 2002, 77쪽.

17) 김윤식은 김유정의 말더듬이 현상과 함께 들병이에 주목했다. 김윤식, 『들병이 사상과 알몸의 시학』,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전신재 편, 282-283쪽. 들병이와 여성매매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김미현, 『송고의 탈경계성』, 『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193-214쪽; 유인순, 『들병이 문학연구』, 유인순 외, 『김유정과 동시대 문학연구』, 59-84쪽; 배상미, 『1930년대 농촌사회와 들병이』,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2013, 454-476쪽; 노지승, 『성sexuality와 농촌, 근대적 가부장제의 외부』, 『김유정과 의 만남』, 김유정학회 편, 257-276쪽 등.

물론 가정이 생산 기능을 지니고 있는 농촌의 경우 아내도 소외 노동에 참여한다. 전통사회에서부터 노비가 없었던 다수의 양반을 비롯해서 양민층을 보면 생계담당자로서 여성의 사회적 중요성은 크게 인정받았다.¹⁸⁾ 남성 가장이 생산을 책임지고 여성이 소비를 담당하는 구조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적어도 도시의 중상층 계급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자본주의의 핵가족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따라서 소외된 노동을 하는 인간 존재라는 점에서는 남, 여의 구별은 없다.

농촌의 남성과 여성이 안팎 구분 없이 소외 노동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노동의 젠더 구별은 뚜렷하다. 바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상품화되면서 여성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섹슈얼리티의 상품화라는 여성 상품화의 극단화된 양상을 남성 상품화의 극단적인 양상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소설 「금」에서는 자해를 해서 금을 훔쳐 나오는 광산노동자가 등장한다. 노동자가 자해를 감행한 일은 비친한 “돼지 같은 몸뚱이”¹⁹⁾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방식으로 자신의 몸과 금을 교환하는 극단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력 상품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소외 현상은 남, 여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 섹슈얼리티가 상품화되고 직접 인신매매되는 것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설 속에는 ‘어리고 예쁘다’는 식으로 연령과 외모를 기준으로 대상화되고 소외된,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이제 아내들의 매매 양상을 집중해서 살펴보겠다.

3. 가부장 자본가의 아내 (성)매매

근대 소설 속에서 팔리는 아내들은 드물지 않다. 김동인의 「감자」, 현

18) 조한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82쪽.

19) 「금」, 79쪽.

진건의 「정조와 약가」, 이태준의 「오몽녀」, 이상의 「날개」 등 팔리는 아내들이 등장하여 당대 작가들의 여성 인식과 계급 인식을 보여주는 문체작은 많다.²⁰⁾ 김유정의 소설에는 농촌의 직업적 성매매로서 들병이가 등장하고 본격적인 인신매매가 특징적으로 등장한다. 소설 속 아내 매매의 양상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인신매매되는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자.

인신매매되는 여성은 앞서 살핀 매매혼 시장의 풍습과 관련되어 있다. 구매한 물건은 판매도 가능하겠으므로 매매혼 시장에서 아내를 샀던 남편은 결혼 후 필요에 따라 아내를 매매 시장에 내놓는다. 「가을」에는 돈 50원이 오가는 여성 매매이자 매매혼의 거래가 등장한다. 「가을」에서는 복만의 아내가 소 장수에게 50원에 팔리는데 사실 복만 부부가 소장수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진다. 소설 초반에 복만의 아내는 피동적인 거래 품목처럼 묘사되지만 후반에 이르면 남편과 적극 공모하여 소장수의 환심을 샀다는 사실이 밝혀지므로 아내는 기실 매매혼 사기를 공모하는 주체다.

그래서 「가을」은 남편이 아내를 판매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부가 벌이는 매매혼 사기극인 셈인데 문제적인 대목은 복만이 아내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설의 화자인 내가 생각하는 대목이다. 나는 추수를 해도 겨울나기가 막막한 소작농으로서 금점이나 노름을 해볼까 생각하지만 밀천도 없다.

“(중략) 돈은 없고 복만이같이 내팔 아내도 없다. 우리 집에는 여편네라고는 병든 어머니밖에 없으나 나이도 늙었지만(좀 부끄럽다)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 못하고- 이런 생각에 잠기어 짜증나는 복만이더러 아내를 팔지 마라 어찌라할 여지가 없었다. 나두 일찍이 장가나 들어두었으면 이런 때 팔아먹을 걸 하고 부끄러운 후회뿐으로 (후략)”²¹⁾(밀줄은 필자)

20) 이들 작품을 살펴본 일례로 이혜령, 앞의 책, 216-236쪽.

21) 「가을」, 193쪽.

「가을」의 가난한 화자가 떠올리는 방안은 가부장 권력을 활용하여 가족 성원을 판매하는 것이다. 장가를 들지 않아 <팔아먹을 아내가 없으니 → 어머니 팔아먹기를 떠올리는> 생각의 흐름은 한 세기 전 여성 인권의 상황을 감안한다고 해도 충격을 준다. 노모는 늙고 병들어 상품가치가 떨어진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성 매매 시장에서 노모는 하자 있는 상품, 매매 조건이 문제되는 상품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노모를 상품화하는 발상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 못”한다는 가부장 의식은 전통적 유교 가치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효(孝)의 가치를 간단히 깨부수고 있다. 병든 노모의 처지는 부계 혈연사회에서 여성이 삼종지도에 따라 어렸을 때는 아버지, 혼인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에게 의존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말해준다. 삼종지도는 “여성이 남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²²⁾이다. 화자의 상상 속 노모의 존재는 술한 딸 팔기로 시작되는, 여성들이 처한 고난의 길을 극적으로 대변한다.²³⁾

여성 매매의 인습은 「가을」에서 화폐시장의 확대와 맞물려 확대되어 있다. 식민지자본주의의 수탈 구조에서 돈 한 푼 나는 데는 없지만 빚만 늘어나는 ‘무전강산(無錢江山)’의 농촌에서 아내 매매에 오가는 돈 50원은 가난한 소작농인 화자나 복만이가 만질 수 없는 큰 돈이다. 복만의 아내를 사겠다는 상대자 역시 빈한한 농민이 아닌 시장의 상인(소장수)이다. 가난한 처지에서 아내 판매를 통해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부장 판매자, 아내를 얻어 술장수를 시켜야겠다는²⁴⁾ 가부장 구매자, 그리고 큰 돈에 달라붙은 중개자들(10원의 수수료를 받은 중매자인 술집 노파, 계약서를 쓰고 술 몇 잔 얻어먹은 화자)이 합쳐져서 아내 매매 시장이 성립된

22) 조한혜정, 앞의 책, 75쪽.

23) 여성 가족 구성원을 취하는 양상으로 혼인한 누이를 납치해 제 동료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노다지」 속 더पाल이도 참조. 동료는 크게 놀라지 않고 더पाल의 호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다지」, 56쪽.

24) “얼굴 푹푹한 아내를 맞아다가 술장사를 시켜보고자 버르던 중”이라는 소장수. 「가을」, 199쪽.

다.

소설에는 새로운 화폐시장과 오랜 여성매매의 관습이 교차하면서 이색적인 매매 상황이 펼쳐져 있다. 「가을」의 결혼은 프로(술집 노파)가 개입한 하층 계급 간의 전형적인 매매혼인데 “매매계약서”라는 성문화된 계약을 통해 ‘근대화된’ 모습으로 그려진다. 학교 좀 다녔으므로 계약서 쓸 줄 안다고 불려간 화자는 인신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²⁵⁾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복만이-필자) 아내를 물러달라지 않기로 맹세합니다.”라는 계약서의 마지막 문구는 구매자인 소장수가 소를 매매할 때 쓰는 신식 절차를 적용한 것이다.²⁶⁾ 「가을」의 인신매매 계약서는 결혼봉건제의 전통 속에서 횡행했던 아내 판매의 관습이 신식 풍속과 만나 빚어지는 해프닝이라 할 수 있다.

아내 매매보다 소설 속에 더 흔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내의 성판매이다. 아내의 성판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35년 조선일보사의 신춘문에 현상모집 일등 당선작 「소낙비」에는 성폭행 미수²⁷⁾와 함께 아내를 구타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남편이 등장한다. 가난한 유량민 부부의 남편이 아내에게 노름 밀천 2원을 마련해내라는 강요과 폭력이 결국 아내의 성판매에 대한 강제가 되는 까닭이 있다.

“돈 이원커녕 당장 목을 따대도 피가 나올지가 의문”²⁸⁾이라는 말로 전달된 무전강산인 농촌의 수탈 상황에다 전통적인 결혼봉건제 하의 여성의 처지를 함께 고려하면 아내가 화폐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묘연하

25) “매매계약서/ 일금 오십 원이라/ 우금은 내 아내의 대금으로써 정히 영수합니다./ 갑술년 시월 이십일/ 조 복 만/ 황거풍 전” 「가을」, 194-195쪽.

26) “이 놈이 소장에서 하던 버릇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닌가” 「가을」, 195쪽. 「봄봄」속 데릴사위와 장인의 실랑이를 중재하는 데 튀어나오는 신조어(“계약”, “징역”, “손해죄”, “법률” 등)도 비슷한 맥락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다.

27) 동리의 부자 이주사가 “허둥지둥 춘호 처를 마구 깔다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달아난 일이 있었다.” 「소낙비」, 41쪽.

28) 「소낙비」, 41쪽.

다. 결혼봉건제 하에서 여성이 주변화된 상황에서 아내가 화폐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성판매밖에는 없다. 결혼봉건제에서 여성은 전 산업사회이자 농경사회에서 공적 영역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지위 때문에 성적으로 종속되고 경제적으로 의존해있다.²⁹⁾ 따라서 여성이 화폐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여성이 쉽게 성으로 환원되는 가부장제의 사적 영역에서 매매와 강간이 횡행했던 현실을 역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푹푹하겠다. 돈 이 원짜이야 어떻게라도 될 수 있겠기에”³⁰⁾라는 남편의 언사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소낙비」의 아내는 성판매를 이어갈 것이고, 아내가 노름 밀천을 딸 수 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나 안 맞고 의종게 살 수만 있다면”³¹⁾하는 아내의 바람이 지속될 것이다. 동리 부자(이주사)의 첩 제안이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혼을 선택하는 대신 아내는 그저 매나 맞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제시된다. 아내의 바람은 어디까지나 성판매로 화폐(노름 밀천)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에서야 가능하다. 아내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남편은 “개돼지”에게 하듯 무시로 하는 매질 대신에 다정스럽게 굴 것이며, 아내의 성구매자로부터 “그 이 원을 고이 받고자 손색없도록 실패 없도록 아내 모양내어 보”³²⁾내는 남편의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남편은 무전공산을 떠도는 뿌리 뽑힌 유랑민이라는 피착취자인 동시에 아내의 성을 착취하는 가부장 자본가이다. 폭력 가부장의 난데없는 부르짖음, “세상에 귀한 것은 자기의 아내! 이 아내가 만약 없었던들 자기는 홀로 어떻게 살 수 있었으려는가!”³³⁾하는 부르짖음은 아내가 성판매를 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에서야 성립된다.

29) 캐슬린 배리, 앞의 책, 77-78쪽.

30) 「소낙비」, 39쪽.

31) 「소낙비」, 46쪽.

32) 「소낙비」, 51쪽.

33) 「소낙비」, 50쪽.

4. 들병이 성노동을 통해 본 착취 구조와 해방의 가능성

계급적, 민족적으로 보았을 때 착취되는 하층 계급이자 식민지민인 농민 가족에서 남편이 아내를 착취하는 자본가로 등장하는 보다 결정적인 국면은 문체의 들병이가 등장하는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들병이는 시골 주막을 돌아다니며 술을 팔고³⁴⁾ 몸을 팔았던 기혼 여성으로 「술」, 「아내」, 「총각과 맹꽂이」, 「산골나그네」, 「조선의 집시」에 등장한다. 「총각과 맹꽂이」와 「산골나그네」에서는 들병이가 찾아든 마을에 몰려드는 시골 남성들이 그려져 있고, 「술」에는 아내를 버리고 들병이를 따라나서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아내」에서는 농사짓지 말고 들병이로 나서자고 자처하는 아내가 등장한다.

들병이란 명명은 당대 김유정의 글 말고는 찾아보기 어려운데³⁵⁾ 수필 「조선의 집시- 들병이 철학」이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들병이를 도시의 작부(기생으로 따지면 삼패 기생)에 대응하는 시골 작부라 한다면 도시 작부와 다를 바가 없으나 주로 빈한한 농군을 상대하므로 돈뿐만 아니라 쌀, 벼, 콩팥, 조를 비롯해 식기, 가구, 의복류의 생활품을 되는대로 수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화폐 외에 현물이 성매매 거래에 개입한다는 점보다 더 큰 차이점은 여타 작부와 달리 들병이가 남편이 있는 여성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들병이의 남편은 “흔히 도박자요 불량하기로 정평”이 나있어서 “아내의 밥을 무위도식하며 아내가 돈을 벌어 놓으면” “압수”해가서 투전을 하고 술을 먹는다.³⁶⁾ 여기서 성 역할을 뒤집어서 ‘남편이 벌어들인 돈을 도

34) 정확하게는 술집의 술을 사서 다시 되파는 형태로 설명되어 있다. 「조선의 집시」, 416쪽.

35) ‘들병이’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들병이는 1980년경 처음 등장한 후 주로 신문연재소설 속에 등장한다. 에로영화 일색이었던 1980년대 영화관에 등장한 영화 「들병이」 신문광고(『동아일보』, 1989.10.21.13면)에서는 뜻자리와 술병을 든 여성으로 이미지화되었다.

박에 소진하는 아내'라는 가정을 해보면 문제 지점은 명백해진다. 들병이 아내와 도박자 남편의 결합대는 한쪽이 생활비를 술과 도박으로 소진한다는 문제, 그리고 한쪽은 도박해서 소진하고 한쪽은 돈 버는 노동을 하는 것을 당연한 “남편의 권리요, 또는 아내의 의무로 안다”³⁷⁾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결혼봉건제 속 시골 여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돈 되는 여성노동이 성노동일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층민 농가에서 아내가 담당하게 되는 노동, 즉 산을 기어올라 어찌다 마주치는 도라지나 더덕을 캐어 모아 동리 주막에서 사발 바꿈을 하거나, 남의 보리방아를 온종일 짚고 보리밥 그릇이나 얻어올 수 있는³⁸⁾ 류의 생계 노동은 층분치 않다. 아내에게는 생계 해결은 물론이고 남편이 술을 먹고 도박을 할 수 있는 밑천까지 마련할 만큼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교환노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내를 들병이 시켜 사는 남편 = 성노동을 통해 도박자 남편을 부양하는 아내>로 요약되는 들병이 부부의 생활은 『조선의 집시』에서 가난한 농촌 부부가 도모할 수 있는 생존책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아내는 근육으로 남편은 지혜로 이렇게 공동전선을 치고 생존경쟁에 처한다.”³⁹⁾는 작가의 설명은 정당하지 않다. 먼저 여성의 성노동은 소외된 일반 노동이나 육체노동으로 설명될 수 없다. 여성의 성노동은 전쟁의 군사 노동처럼 목숨을 건 위험한 노동이 내재하는 폭력과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는 ‘죽음정치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죽음정치적 노동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는 노동으로 노동이 수행된 때나 그 후에 내던져지고 대체되고 축자적으로나 비유적으로 살해될 수 있는 노동 상품이나 노동자를 가리킨다.⁴⁰⁾ 술파는 술상 앞에서 해산하는 임신부 들병이 이야기기⁴¹⁾ 성판매 노동자의 처절한 상황을 말해준다.

36) 『조선의 집시』, 419쪽.

37) 『조선의 집시』, 419쪽.

38) 『소낙비』의 춘호 아내가 하는 노동이다. 『소낙비』, 41쪽.

39) 『조선의 집시』, 421쪽.

40)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15, 42쪽.

아내의 죽음정치적 노동을 “배후”에서 “지휘조정”하며 “간접적으로 주객을 연락”⁴²⁾하는 남편의 역할을 두고 부부의 생존전략에 기여하는 “지혜”로 간주하기는 무리스럽다. 들병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농촌 남성들이 남편에게 막걸리라도 먹여 들병이에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⁴³⁾ 대목에서 남편의 존재는 드러날 뿐이다. 현대의 사례로 옮겨보았을 때 들병이 남편은 성판매여성을 뜯어먹는 기동서방 같은 존재에 가깝다.

들병이의 교환 노동이 보여주는 착취의 형태는 분명하다. 첫째, <들병이와 들병이 구매자>의 관계는 유흥 및 성적 쾌락을 화폐와 교환하는 합리적인 계약 관계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당시 사회에서 돈을 가지고 성적 쾌락을 구매할 수 있는 이는 남성이지 여성일 수 없다는 사실, 화폐 소유자가 거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매춘은 화폐의 발생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혼인 내 성관계와 달리 돈이 요구된다. 하지만 「조선의 집시」 속 농촌은 조금 풍경이 다른데 무전장산의 농촌에서 현금뿐만 아니라 곡물이나 생활용품도 성판매의 대가가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째, <들병이 아내와 도박자 남편>의 부부관계에서도 착취 관계가 드러난다. 남편은 아내가 몸을 팔아 얻은 대가를 착취하여 생계를 해결하고 도박과 음주로 일관하면서 가부장의 “권리”를 누린다. 남편은 결혼봉건제가 보장한 남편의 권리를 일부 취하면서 아내의 성노동을 착취하는 악덕 자본가로 거듭나고 있다. 도박자 남편의 존재가 없었다면 아내의 성노동 수익이 남편이라는 가부장 자본가로부터 직접 착취되는 구조는 제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노동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활을 이어나가는 여성은 사실상 생존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주체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소

41) 「조선의 집시」, 419쪽.

42) 「조선의 집시」, 421쪽.

43) 「조선의 집시」, 421쪽.

설 「술」에는 동네 들병이와 바람난 남편이 등장하는데 남편이 들병이를 따라나서겠다는 까닭은 편한 인생을 살겠거니 하는 기대 때문이다. 들병이와 비교했을 때 아내는 “아리랑 타령 한마디 못하는 병신, 돈 한 푼 못 버는 천치”⁴⁴⁾로 여겨진다. 사실상 남편의 정절이 문제되지 않고 일부다처 풍습이 횡행했던 사회에서 아내를 버리는 남편의 이유랄 게 별 의미는 없겠으나 아내를 버리는 구실에 ‘아내가 돈 못 번다’는 사실이 포함된 것은 눈길을 끈다.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아내라는 존재는 더 이상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⁴⁵⁾ 실제로 「술」에서 들병이가 계속을 따라나서려는 근식은 계속의 말과 행동에 눈치 보는 모습을 보인다.⁴⁶⁾ 화폐가 여성의 독립 가능성을 보장하는 또 다른 경우는 자전적 소설인 「생의 반력」에도 나온다. 「생의 반력」 속 소박맞은 누이가 홀로서기를 시도할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의 노동과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직업(공장노동)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동생 즉 연령의 지위는 낮지만 젠더 지위가 높은 가족 구성원을 누이가 함부로 구박할 수 있는 것도 누이가 경제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생의 반력」 속 오누이는 누이의 공장 월급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

가부장의 권리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훼손된 것이 아니다. 부계 중심의 배타적 혈통 원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정절이 강요되었던 상황에서 들병이의 남편은 아내의 성적 정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부계 사회에서 여성의 성 관계가 통제되고 열녀관과 재가 금지,

44) 「술」, 145쪽.

45) 이에 주목한 연구로 성별 권력 관계 역시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 김양선, 앞의 글, 86쪽; 들병이의 몸에 대한 해석(들병이의 몸은 남편의 소유가 아니며 그 누이의 소유도 되지 않는 자유를 얻는다는 점)으로 김주리, 앞의 글, 301쪽; 가장 적극적으로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읽어낸 탈식민지적 관점의 연구로는 이진송, 앞의 글을 꼽을 수 있다.

46) “계속은 모두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는다.” 이진송, 앞의 글, 50쪽.

출가외인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했던 상황을 보면⁴⁷⁾ 들병이 남편의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는 훼손된 상태다.

「정조」에 등장하는 행랑어멈 부부는 들병이의 경우는 아니지만 아내가 성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력을 확보하는 경우로 돈 많은 주인을 공략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랑어멈은 성공적인 가계 설계의 주체로 제시되어 있다. 행랑어멈은 굶신굶신하며 행랑어멈과 서방님의 결합을 목인하는 모습 정도로 처리되어 존재감이 없다. 아내의 성도 배타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아내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남편의 모습은 전형적인 가부장의 모습이 아니다.

하지만 경제력을 지닐 수 있는 아내들, 더 이상 남편의 성적 소유물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난 새로운 아내들은 소설에서 여전히 가부장에 종속된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다. 문제작 「아내」에서 농사짓지 말고 들병이로 나가자는 아내의 제안이 좌절된 까닭은 아내가 결론적으로 들병이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병이로 나가겠다는 아내의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밤마다 아리랑을 가르쳤던 남편이 아내를 폭력으로 제압하는 까닭은 아내가 술을 배운다며 동네 남정네와 어울렸기 때문이다. 아내가 단죄되는 까닭은 이윤이 없는 유흥 활동을 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남편 가부장은 독자적인 유흥과 성적 주체로 거듭나려는 아내를 징벌하고 제압한다.⁴⁸⁾

이 외에도 소설에는 성판매나 인신판매의 수익 활동 이후에 아내가 남편 가부장에게 복귀하는 틀이 제시되어 있다.⁴⁹⁾ 「산골나그네」의 들병이 아내, 「가을」의 복판 아내, 「정조」의 행랑어멈이 그들이다. 「산골나그네」

47) 배타적 혈통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부계 가족 속에서 다른 혈통을 지닌 여성을 위치시키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있다. 조한혜정, 앞의 책, 72-73쪽.

48) “년의 꼴 봐하니 행실은 예전에 글렀다. 이 년하고 들병이로 나갔다가는 너덕히 나는 한열에 재워놓고 딴 서방 차고 달아날 년이야.” 「아내」, 179쪽.

49) 지배적인 일부중사 이데올로기와 비교한다면 “지배층의 열녀담을 패러디한 민중의 이부열녀담”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원식, 『문학의 귀환』, 창비, 2001, 200쪽.

의 아내는 제안 받은 혼처를 뿌리치고 거지 남편에게 복귀하며, 「가을」과 「정조」의 아내들은 각각 거지 아내 행세를 하거나 주인을 유혹해서 이익을 취한 후 남편과 결합한다. 「소낙비」의 매 맞는 아내도 남편에게 복귀한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성관매로 내몰리는 아내는 부잣집 첩살이를 제안받기도 하지만 무지한 매질과 도박을 일삼는 춘호의 아내로 복귀한다. 이들 가난한 여성들은 “생활난으로 말미암아 이혼”⁵⁰⁾하는 혼한 경로를 밟고 있지 않다.

아내가 취할법한 가장 현실적인 경로를 「만무방」의 응칠 부부가 보여 준다. 빛에 허덕이다 야반도주한 응칠 부부는 극빈한 유랑 생활을 이어가다가 각자 살 도리를 찾는 게 낫겠다고 갈라선다. “아내의 말대로 개가를 해가서 젓먹이나 잘 키우고 몸 성히 있으면 혹 연분이 닳아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깐” “서로 갈리어 제 맘대로 빌어먹는 것”⁵¹⁾이 오히려 낫겠다며 부부는 헤어진다. 경제난으로 갈라서는 응칠 부부는 가난한 하층민 부부의 현실상을 반영한 모습이지만 김유정의 소설에서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이다.

종속된 아내의 형상에는 작가의 식민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아내는 폭력에 길들여진 속없는 바보처럼 묘사된다. 「아내」 속 아내는 “별 욕을 다하고 개 잡듯 막 두들겨도 조금 뒤에는 해, 하고 앞으로 겨드는 이년”, “년도 한참 두들겨 맞고 나서 같이 자리에 누우면 “내 얼굴이 그래두 그렇게 승없진 않지?”하고 속없이 말거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⁵²⁾ 「소낙비」 속 아내는 강요된 성관매를 통해 겨우 매질을 피한 후에 일순 다정해진 남편에게 만족하며 잠자리에서 “서울 언제 갈라유?”라며 “응석”을 부리는 모습으로 제시된다.⁵³⁾ 여성을 미숙하고 열등한 존재로 그리는 대목에는 여성을 식민지화하고 또한 식민지민을 ‘여성화’해서 미

50) 「조선의 집사」, 419쪽. 빈민 조혼의 혼한 결과로 남성을 버리는 여성이 많았다. 김경일, 앞의 책, 148쪽.

51) 「만무방」, 100쪽.

52) 「아내」, 177, 172쪽.

53) 「소낙비」, 48쪽.

속한 어린아이로 바라보는 전형적인 남성 식민주의자의 시각이 담겨있다.

이 가부장 식민주의자의 시선은 당시 결혼봉건제 사회의 전형적인 여성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을 두고 “내 계집을 내가 쳤는데” 뭐라 할 건가, “제 아내 제가 잡아먹는”⁵⁴⁾다며 이웃 사람들은 말한다. 계집을 욕하고 치고 차고 한바탕 두들겨대는 “지랄”을 하고 나면 웬만치 스트레스가 풀리고 속이 가라앉는 것, “이 멧에 계집이 고마운 물건이라 하는 것”이다.⁵⁵⁾ 가부장적 폭력에 대한 옛 시선은 오늘날 여전히 아내 구타나 남성의 테이트 폭력에 둔감한 사회 인식과도 닿아 있다. 작가의 가부장적 시선은 「슬픈 이야기」 속 매 맞는 아내가 “여필종부의 매운 절개를 변치 않으려고”⁵⁶⁾ 견딘다는 언어도단의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매 맞는 아내가 여필종부의 순종형이나 순진한 아이처럼 그려지는 가부장적 폭력성과 마찬가지로 폭력 남편이 지닌 아내에 대한 애정이 일관되게 설파되는 대목은 가부장제의 뿌리 깊은 폭력성을 반영하고 있다. “계집 좋다는 건 욕하고 치고 차고. 다 이러는 멧”이라는 남편이 하는 말, “우리가 원수같이 늘 싸운다고 정이 없느냐 하면 그건 잘못이다. 말이 낫으니 말이지 정분 치고 우리 것 만치 찰떡처럼 끈끈한 놈은 다시없으리라”, “부부의 정이란 이런 겐지 모르나 하여튼 영문 모를 찰겨머리 정이다”⁵⁷⁾라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세상에 귀한 것은 자기의 아내! 이 아내가 만약 없었던들 자기는 홀로 어떻게 살 수 있었으려는가.”⁵⁸⁾하고 부르짖는 남편, 그리고 노름 밀친을 마련해오라며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남편은 어떻게 동일 인물일 수가 있나? 이 분열과 비정상의 행태를 두고 욕설과 폭력 속에 오가는 부부의 끈끈한 정을 읽어내거나 나아가 여성의 건강한 생명력을 끌어내어 의미부여하는 시각은⁵⁹⁾ 가부장적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식민주

54) 「슬픈 이야기」, 295쪽. 아내 구타를 말리는 이웃은 제지당한다.

55) 「아내」, 171-172쪽.

56) 「슬픈 이야기」, 295쪽.

57) 「아내」, 172쪽.

58) 「소낙비」, 50쪽.

의자의 시선이 되기 쉽다.

5. 맺음말: 요약과 전망

본 연구는 가족을 고정된 실체로 보거나 신화화하지 않고 가족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흔히 가족은 증여와 호혜의 공동체로 여겨지지만 증여와 호혜가 자유롭고 교환과 계약은 폭력적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부장 가족제도 내에서의 증여자의 권력과 시장 교환의 폭력성이 어떻게 결탁하고 갈등하는지에 대해 본 연구는 주목하고자 했다.

김유정의 소설 속에서 단출한 형태의 부부 단위의 가족은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도박이나 사기, 도둑질,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한다. 토지로부터 떨어져나간 농민들이 보여주는 일탈 행위는 식민지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했으나 이들의 일탈 과정에서 또 다른 착취 양상이 드러난다. 바로 가부장제에서 남성 가장이 성(젠더) 위계와 연령 위계에 따라 가족 성원을 착취하는 양상으로서 남성 가부장이 여성 가족 성원의 착취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구체적인 착취 양상 속에는 종래의 가부장 권력이 화폐 권력과 결합한 새로운 여성 매매 행태가 드러나 있다.

소설에는 소외 노동의 극단화된 형태인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매매 과정에서 파는 주체와 팔리는 대상은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어 있다. 근대 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가부장 남성 권력의 유형으로서 딸을 파는 가난한 아버지 이외에도 공식적인 혼인 제도를 통

59) 난폭한 행위 가운데에서도 끈끈한 부부애를 잃어내고, 남편이 가장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아내가 활약하는 모습을 통해 식민지 민중의 생명력을 잃어내는 시각(일례로 전신재, 「부권 상실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 『김유정과 동시대 문학 연구』, 유인순 외, 56-57쪽)은 최근 연구에서도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해 사실상 딸을 판매하는 아버지가 등장한다(「봄봄」, 「애기」, 「총각과 맹꽂이」). 매매혼 시장에서 남성의 출전 자격은 경제력(화폐와 교환되는 노동력도 포함)이요, 이에 상응하는 여성의 출전 자격은 연령, 외모와 같은 생략적 요소다. 아버지가 딸을 거래하는 매매혼 시장의 연장선에서 남편은 아내를 거래하며 팔리는 아내들이 등장한다.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 소외, 생산의 결과물과 분리되는 근대의 노동 소외 현상은 일반적으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직접 인신매매를 통해 거래되거나(「가을」) 섹슈얼리티가 상품화되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가난한 농군이나 유랑민인 부부 가족은 식민지 자본가들에게 억압받는 피착취자들이지만 남편은 다시 아내의 성노동을 착취하면서 가부장 자본가로 군림한다. 「소나기」의 아내는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돈(남편의 노름 밀천)을 마련하고자 동네 부자에게 몸을 파는데 무전장산의 농촌 상황과 결혼봉건제 하의 주변화된 여성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아내가 화폐를 획득하는 방법은 성판매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보다 공고한 형태로 직업적인 성노동을 둘러싼 착취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는, 김유정 문학에서 주목을 받아왔던 들병이 부부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술」, 「아내」, 「총각과 맹꽂이」, 「산골나그네」, 산문 「조선의 집시」). 들병이는 남편이 있는 시골의 떠돌이 작부다. 성매매가 시장화, 대중화되면서 하층 농민들도 성 구매를 하게 된 현상, 그리고 가부장 남편이 자본가로 변모하는 양상이 어울리면서 들병이 거래가 형성된다. 들병이 부부는 도박자 남편과 성노동자 아내의 결합으로 부부의 생활은 <아내가 몸 팔아 남편 부양하기>로 요약될 수 있다. 도박자 남편의 존재가 없었다면 아내의 성노동 수익이 남편이라는 가부장 자본가로부터 직접 착취되는 구조는 제거되었을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전통 가부장의 권리는 잃어버리지만 아내를 방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새로운 가부장 자본가의 면모를 보인다.

성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아내는 사실상 더 이상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자적인 주체로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화폐가 여성의

독립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가부장의 권력이 경제적 측면에서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성적 정절을 소유하지 못하므로 전형적인 가부장의 권위는 훼손되어 있다. 실제로 아내를 경제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남편이 결혼봉건제의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상황임에도 소설의 여성이 대체로 가부장에 종속된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데는 여성을 식민화하고 식민지민을 여성화하는 전형적인 남성 식민주의자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

김유정 문학은 종래 가부장의 권력과 화폐 권력이 결탁하거나 경합하는 상황을 잘 드러낸다. 그러므로 김유정 문학에서 가부장제 억압 구조의 공고함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부장적 시선으로 채 가려지지 못한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탈식민주의적 해석도 가능해지면서 해석의 폭이 넓어진다. 적어도 작가가 지닌 가부장적 시선과 오늘날 연구자의 가부장적 시선이 만나 <하층 계급 여성= 억압받는 식민지민= 민중의 생명력>으로 읽어내는 단선적이고 위험한 논의를 경계하는 한에서 김유정 문학을 둘러싼 논란은 생산적이고 의미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1. 자료

전신재 편, 『김유정전집』, 강, 2007.

2. 단행본

고병권, 『화폐, 마법의 사중주』, 그린비, 2005, 183쪽.

권명아,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15쪽.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131-132쪽.

김양선, 「1930년대 소설과 식민지 무의식의 한 양상」, 『김유정 문학의 재조명』, 김유정문학촌, 편, 소명출판, 2008, 86쪽.

- 김윤식, 「들병이 사상과 알몸의 시학」,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전신재 편, 한림대학교, 1997, 282-283쪽.
- 김화경, 「김유정 문학의 근대 자본주의 경험과 재현 양상」, 『김유정의 귀환』, 김유정학회 편, 소명출판, 2012, 165-195쪽.
- 노지승, 「성과 농촌, 근대적 가부장제의 외부」, 『김유정과의 만남』, 김유정학회 편, 소명출판, 2013, 257-276쪽.
- 서준섭, 「몰락 농민-유랑인의 삶과 애환과 통념을 넘어선 생존전략 이야기」, 『김유정과 동시대 문학 연구』, 유인순 외, 소명출판, 2013, 11-31쪽.
- 유인순, 「들병이 문학연구」, 『김유정과 동시대 문학연구』, 유인순 외, 소명출판, 2013, 59-84쪽.
- 이경, 「자본주의보다 먼저 온 실패의 예후와 대안적 윤리」, 『김유정과의 만남』, 김유정학회 편, 소명출판, 2013, 164-198쪽.
-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5, 42쪽.
-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학』, 소명출판, 2007, 234쪽.
- 전봉관, 「김유정의 금광 체험과 금광 소설」, 『김유정의 귀환』, 김유정학회 편, 소명출판, 2012, 146-164쪽.
- 전신재, 「농민의 몰락과 천진성의 발견」,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전신재 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313-336쪽.
- 전신재, 「부권 상실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 『김유정과 동시대 문학 연구』, 유인순 외, 2013, 56-57쪽.
- 조한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72-73, 75, 82쪽.
- 최원식, 『문학의 귀환』, 창비, 2001, 200쪽.
- 홍정선, 「김유정 소설의 구조」,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전신재 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303-311쪽.
- 게오르그 짐멜, 『돈의 철학』, 김덕영 역, 길, 2013, 642쪽.
- 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1』, 김호균 역, 백의, 2000, 215쪽.
-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정금나·김은정 역, 삼인, 2002, 77쪽.

3. 논문

- 권창규, 「토지로부터 분리된 농민과 투기자본주의 주체 사이-김유정 소설의 탈주하는 하층민들」, 『인문과학연구』 55,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7.
- 김미현, 「승고의 탈경계성-김유정 소설의 “아내팔기” 모티프를 중심으로」, 『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193-214쪽.
- 김주리, 「매저키즘의 관점에서 본 김유정 소설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0, 한국현대문학회, 2006, 295-323쪽.
- 김준현, 「김유정 단편의 “반쑈소유” 모티프와 1930년대 식민수탈 구조의 형상화」, 『현대소설연구』 2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43-163쪽.
- 박혜경, 「김유정 소설 속 여성인물이 구현한 성의 양상」, 『아시아문화연구』 32,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161-179쪽.
- 배상미, 「1930년대 농촌사회와 들병이」, 『민족문학사연구』 51, 민족문학사학회, 2013, 454-476쪽.
- 이진송, 「김유정 소설의 장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2015, 1-142쪽.
- 이호림, 「시각성 측면에서 본 30년대 유정 소설의 여성상 연구」, 『비평문학』 17, 한국비평문학회, 2003, 251-265쪽.
- 장소진, 「김유정의 소설 <소낙비>와 <안해>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1, 165-188쪽.

Abstract

The conflict between patriarchal power and monetary power as represented in Gim Yu-jeong's work

Kwon, Chang-gyu

There are many nuclear families isolated from lands in Gim Yu-jeong's work. The proletarian families engaged in deviant behaviors in the colonized rural districts during the 1930s, but the exploitative features of their behaviors should be discussed using the marital feudalism structure. This study focused on the gender and sexuality discrimination in a patriarchal structure. In concrete, women trafficking and women's sex work in purchasing marriage lives were discussed in the study. The possibilities of women's liberation from the patriarchal structure, as well as men's transformation into masculine capitalis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conflict between patriarchal power and monetary power.

Key words : nuclear family, money, marital feudalism, patriarchy, colonial capitalism, sex work, women trafficking, purchasing marriage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26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 2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